

지역 대학들, 문화전문인력 양성 적극 나선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3개분야 40개 커리큘럼 BK21, 7년간 11억 지원... 조선대는 '아시아금기문화인력' 양성

2014년 광주·전남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아시아의 문화지형도를 바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국내 문화 핵심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이 광주·전남의 문화 생태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이 같은 기대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화 생태계 형성에 따른 문화인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일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필요한 문화인력이 300여명으로 예상되고, 기타 연계 사업을 고려할 경우 1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급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 개설=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 분야 전문대학원으로 지난 2006년 출범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강래 교수·이하 문전원)이 개원 8년 만에 일반대학원 '문화학과(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로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문전원은 오는 20일까지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추가 특별전형을 진행한다.

문전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박사과정은 '문화통섭적 고급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문화예술기획 기반 문화통섭과정' '문화경영관광기반 문화통섭과정' '미디어예술공학기반 문화통섭과정' 등 3개 분야 40개의 커리큘럼 등으로 짜여 있다. 교수진은 20명으로 전임교수진도 전문대학원 중 국내 최고 수준인 7명에 달한다. 문전원은 올해 내에 전임교수 3명을 추가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전원은 문화전문인력 양성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 10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박사과정 개설을 비롯한 8대 핵심 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와 같은 국비사업 등을 운영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상호매체연구소, 베를린 세계문

화의 집, 영국 맨체스터대학 예술문화경영학과 등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과 교류협정을 준비중이다.

이강래 원장은 "박사과정 개설과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 확충을 통해 최고의 문화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체계를 완성해 나갔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BK21=문전원은 지난해 교육부의 '두뇌한국21 플러스(BK21)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에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강신겸 교수·이하 문전원BK)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7년간 모두 1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문전원BK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에 기반한 문화예술기획,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마케팅 등을 주도하는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해 연구장학금, 학술대회발표 및 논문게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전문기관 인턴십과 창업교육을 강화해 진로 선택 및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과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대 BK21=조선대도 BK21사업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진행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이 '달콤한 오월길 무빙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제공>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맞춤형 인재 배출 사업을 추진한다. '아시아 금기(禁忌)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오문석 교수)은 아시아 각국의 금기 문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다문화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 허브를 지향하는 광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시아 문화 전문가' '금기문화 이론가' '다문화 전문인력'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한다는 목표다.

사업단은 이 사업을 위해 이론 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원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예비 문화전문인력들에게 지역 사회의 다문화 현장 답사 및 봉사 활동과 해외 아시아 문화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작년 문화카드 이달까지 사용

2013년도 문화이용권 카드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수혜자들을 위해 카드 사용 종료시점인 오는 31일까지 '문화카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만 원 이상 잔액 소지자는 11, 18, 25일 3회에 걸쳐 광주전남문화평생교육원에서 도자기 빚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스퀘어 영풍문고 옆에서 참가신청을 한 뒤 유스퀘어 내 서점, 영화관 등에서 영화를 보거나 도서·음반을 구입하면 된다. 3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제출자 중 선착순 250명에게 간식권을 제공한다.

신청 도서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4만5000원 상당의 책을 선택해 주문하고 배송비 5000원을 포함해 5만 원을 결제하면 된다. 가맹점인 총정리점이 참여해 9, 16, 23일 배송해준다.문의 062-670-791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하얀 겨울의 노래' 불려요

올해 첫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0일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2014년 첫 행사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카페 티브라운 8층에서 열린다.

'하얀 겨울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 눈 등 이즈음 정서와 어울리는 곡들을 함께 노래한다.

함께 배우는 노래는, 진동주 시에 곡을 부친 '눈 내리는 날'에 박원자 시 김규태 곡 '하얀 겨울로 간다'이며 '겨울나무', '눈꽃송이' '겨울강' 등을 유옥순·김성권·김희숙씨 등 회원들이 부른다.

초청 성악가는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는 테너 송태왕(사진)씨다.

우리가곡 부르기회는 올해 채동선, 유신 등 지역 출신 작곡가의 곡들을 조명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우리 가곡부르기회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함께 모여 노래하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60회 행사를 치렀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거리와 차가 나온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6기 작가 입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 중국 북경 창작센터에 6기 작가들이 입주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권승찬(미디어설치)·김형진(회화)·서미라(회화)·임남진(회화)씨 등 광주지역 작가 4명이 8일 중국 북경시 조양구 파산즈 환타에 예술지구에 있는 북경창작센터에 입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창작활동은 물론 오픈스튜디오(5월), 798예술특구 발표전(11월)을 비롯해 평론가 간담회, 국제기회전, 개인전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권승찬씨는 지난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 청년작가로 선정됐으며,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시와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지난해 신세계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김형진씨는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와 의재문화재단 창작스



왼쪽부터 권승찬, 임남진, 김형진, 서미라씨. 스튜디오에서 경험을 쌓았다. 서미라씨는 신세계미술제 대상과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임남진씨는 광주미술상 수상과 광주비엔날레(제8회) 참여 경력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9년 12월 광주미술의 우수성과 지역 작가를 세계무대에 알리기 위해 국내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효윤·전현숙·김진화·김해성·박소빈씨 등 그동안 모두 18명의 작가들이 북경창작센터에 입주해 작품활동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JB**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